



86년과 94년 '우리나라 새벽여행'을 주제로 사진전을 연 바 있는 새벽사진의 개척자 박상훈씨의 사진에 황청원 시인의 맑고 감성적인 언어를 붙였다.



새벽여행 우리가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글 황청원 | 사진 박상훈 이마고 | 각권 1만2천원, 6천원

화협사에서 입산해 법주사, 경국사 등지에서 오랫동안 수행하다 환속한 시인 겸 방송인. <누군가 사랑하고 있을 때 길을 떠나라> 등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을 펴냈으며, KBS1 라디오의

사랑하는 이와 떠나는 새벽여행

‘문화살롱’과 불교방송의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 등 23년 넘게 방송을 하다 지금은 경기도 안성 죽산에서 글만 쓰고 사는 황청원 시인(50). 인기연예인들이 한변쯤 그의 사진계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세계 3대 광고상의 하나인 ‘The New York Festivals’ 금상, ‘CANNE 국제광고제’ 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작가 박상훈(53 · 중앙대 사진학과 교수).

시 모음집 <우리가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이다. 두 권이 함께 들어 있어 독특한 패키지 형식을 이룬다. <새벽여행>은 박상훈씨가 우리나라 곳곳의 자연과 삶이 담긴 새벽 풍경 사진에 감성을 자극하는 황청원의 글이 어우러져 서경과 서정의 절묘한 조화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잊혀진 고향의 풍경들을 오롯이 되살려주며 사랑과 인생에 관한 사색의 깊이까지 맛볼 수 있게 해주어 가볍게 책장이 넘어가면서도 내용의 무게만큼은 무겁다. 책은 ‘고향’ ‘사랑’ ‘인생’ ‘관계’ 등 네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때로는 멀리서 말없이 그렇게 오래 오래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사랑’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다리도 되어주고, 발 씻어주는 강물도 되어주고, 어리석은 거뒀기는 안개도 되어주고, 허물 가져주는 어둠도 되어주며...”(‘인생’ 중에서) “이런 새벽 여럿이 함께 배를 타고 안개 무성한 강을 건너며 깨닫습니다. 삶의 군데군데 놓여있을 절망의 강도 그렇게 건너는 것입니다.”(‘관계’ 중에서)

“새벽에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라는 지은이 황청원씨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새벽이 갖고 있는 코발트 색 빛깔과 고요한 낮이나 밤의 풍경에서 느낄 수 없는 장중한 깊이가 있다. 단점에서 깡 산과 강은 서있거나 누운 그대로 록 연수행 중이다. 번뇌의 옷을 벗은 세상은 보는 이를 숙연케 한다. 이 책은 그런 새벽 정경으로의 초대장이다. 그림 같은 사진과 짙은 글들이 가득 녹아 있는 새벽행 티켓이다. 들의 사진 산문집과 패키지 선물을 모으고 묶어 있는 황청원의 사랑시 모음집 <우리가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역시 맑고 투명한 언어로 새겨져 있어 긴여운을 남겨 준다. “사랑해도 외로울 때 있나니 그때 꼭 말하세요. 그때 우리가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서릿발 가르침 귀에 ‘생생’

해인사 백련암과 은해사 운부암, 법주사 북천암, 팔공산 성전암의 공통점은? 바로 성철 스님이 머물며 수행과 공부의 터전으로 삼았던 암자라는 것이다. <암자로 가는 길> <산방 가는 길> 등의 책을 통해 고즈넉한 산사 암자를 소개해 온 소설가 정찬주씨가 성철 스님이 머물렀던 암자에서 스님의 발자취와 가르침을 찾아본 <자기를 속이지 말라>를 펴냈다. 책은 스님이 머물렀던 암자와 암자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은 1부 ‘성철 스님 암자기행’



성철 스님이 머물며 수행했던 은해사 운부암 뒷방. 사진제공=열림원

과 지은이가 평소 가슴에 새기는 스님의 법문을 모은 2부 ‘어둔 마음을 밝히는 성철 스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자 기행을 떠난 지은이는 만화암에서 출가한 아들을 만나러 온 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다고 박대했던 성철 스님이 자운 스님의 말에 마음을 돌려 1주일 동안이나 어머니를 업고 금강산을 구경시켜 드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북천암에서는 때 묻은 옷가지를 시냇물에 휘휘 내저어 나뭇가지에 말리던 성철 스님의 모습과 버려진 찻잔은 당근도 다시 주워 먹을 만한 곳을 골라내며 “시물(食物)을 화살처럼 무서워라”고 이르던 스님의 가르침을 만난다. 암자 들레에 철조망을 둘러 세상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은 채 10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수행에만 정진했던 성전암도 빼놓을 수 없다. 지은이가 이렇듯 암자를 찾아다니며 새긴 스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뜻의 ‘불가지심(不期自心)’이다. 성철 스님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에서 방에 붙여놓았던 이 말에서 인생을 사는 바른 길을 보게 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자기를 속이지 말라 정찬주 지음 | 열림원 | 9천8백원

세계 최대의 공인전 전문영성! 전강 대산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문계현 선사님이 역점한 <마로보인 전문영성> 전30년중 6년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책도 빠짐없이 펴내고 송하여 공인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한국 불교미술 원류를 찾아서



불교미술기행 조병활 지음 이가서 | 1만5천원

조병활 불교신문사 차장이 펴낸 <불교미술기행>은 불교 경전에 근거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불교문화에 담겨진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놓아 초보자들도 읽기만 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또 이 책은 불교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평과 미술사적인 설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작품과 연관된 부처의 실화와 법문들이 실려 있어 불교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다. 지은이는 한국불교의 원류를 찾기 위해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 네팔 등 10여 나라를 답사 취재했다. 이 책

에는 바로 지은이의 이런 발표를 판 현장 냄새가 물씬 녹아 생생함과 함께 전해준다. 지은이는 불교가 전래된 각국 나라들의 특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같은 주제의 작품인데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인도 뉴델리 박물관의 관세음보살은 가늘고 유연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선 등 외관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각종 장신구와 옷 모양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사리장엄구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세계를 지향하라고 증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불교미술의 목적이므로 확신하기에 펜을 잡았다”고 이 책의 출간 의의를 밝힌다.

김주일 기자

남도에 흐르는 깊은 멋과 맛



시방 여그가 꽃자리여 한승원 지음 김영사 | 1만1천9백원

“혹산도에 가면 최소한 며칠 동안 자기를 가두고 거뒀 밀려오는 파도의 한안 포말 앞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살필 일이다. ... 혹산도는 자기가 가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파악하게 하고, 그를 더욱 우람하게 성장시키는 신령스러운 힘을 가진 섬이다.”(“나를 돌아보는 섬” 중) 작자에게 고향은 글쓰기의 원천이다. 소설가 한승원씨의 고향인 남도의 풍경과 문화 역시 바로 자신의 작품의 속살을 이루고 있다. 1997년, 40여년 만에 전남 장흥의 바닷가를 다시 찾은 지

은이가 글을 쓰는 틀들이 광양과 순천, 여수, 해남, 진도 등 남도 땅 곳곳을 돌아보며 쓴 글을 모았다. 하지만 지은이는 남도의 바다와 풍광을 단순한 눈요깃거리로 삼지는 않는다. 자신을 가두는 지혜와 풀어놓는 지혜를 배우는 강진, 다산초당과 백련사 사이의 오솔길, 멋과 낭만의 향기 여수, 참다운 고향을 알려주는 순천 갈대밭, 가슴 속을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과 광양 매화꽃마을, 꿈꿀 수 있는 지의 행복을 깨우쳐주는 혹산도의 다도회의 섬들 등 남도인의 눈으로 본 남도땅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오래 전부터 꿈꾸듯 내 고향의 문화와 풍경의 속살을 깊이 읽고 싶었다”는 지은이는 “이 책이 올바르게 관광하는 눈을 기르고, 우리 국토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www.twotwocom.co.kr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金剛壯士 200여 가지의 출력양식 지원 (축진, 등표, 위패, 봉투, 우편엽서 등) 나이별 편지 발송 기능을 내장한 막강한 생일관리 기능 국내외 모든 우편물 양식을 지원하는 우편물 발송 기능 신도의 효율적 관리의 핵심, 행사관리(인동, 연등, 기타행사) 단위 사찰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회계관리 기능 영가위패를 한번에 입력, 출력, 관리하는 영가관리 기능 그 외 명함관리, 일장관리, 출력관리 기능 특정축원만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모뎀관리 기능 휴대용 문자메시지(SMS) 전송가능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벤치탁자 평상 1500 * 820 * 400(mm) 가격:150,000 발탁자:130,000 1500 * 1930 * 480(mm) 가격:223,000 발탁자:195,000 벤치탁자 set 1500 * 1790 * 750(mm) 가격:420,000 발탁자:370,000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모공사)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6-9294-8580 전라도: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